

4. 뜻밖의 수확!-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일곱 머리(2)

5. 십사만 사천 명 상상과 추측은 금물이다.

- 읽을 말씀 계 17:9-1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일곱 머리"의 두 가지 의미 중 일곱 산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머리"가 사람 즉 일곱 왕(황제)를 가리킨다는 것과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일곱 머리는 사람 즉 일곱 왕(황제)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 머리가 적그리스적인 성격의 일곱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2)"**라는 말씀 때문에 짐승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해석과 무관합니다.

먼저,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에서 '표범'은 헬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표범과 같은 짐승'(단 7:6)에 속하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가 한 일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난에 할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단 8:8-13, 11:28-32). 따라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의 표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악한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의 곰은 메데와 바사입니다(단 7:5).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 "곰의 발"을 언급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게 짓밟고 박해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계 11:2). 마지막으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의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지만 짐승인데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단 7:4). 자기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뜻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신상의 금 머리가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이 전체가 금으로 된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단 2-3장). 그러자 다니엘

이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4:25)”** 라는 예언대로 쓰디쓴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회개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단 4:2-3, 37). 그러므로 사자의 입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살후 2:3-4, 계 13:5-6). 따라서 제국들을 뜻하는 표범, 곰, 사자가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일 뿐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는 것은 천사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상징인 것처럼 해석을 또 해석해서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일곱 머리 즉 일곱 왕은 누구를 뜻할까요? 사도 요한은 일곱 왕에 대해 굉장히 기이한 말을 했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여덟째 왕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랜트 오즈번은 이 구절을 실체가 아닌 묵시적 상징으로 보고 여덟째 왕이 일곱에 속했다는 말도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에 있었다" 즉 실존인물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계 17:8, 11). 그러므로 일곱 왕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로마 황제들 중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1. 자기를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한 황제

일곱 머리 모두 참람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계 13:1), 일곱 왕들은 자신들을 신이라 자처하면서 경배하도록 강요했던 오만한 황제들임에 틀림없습니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

일곱 머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머리로서, 대환난을 일으키고 성도를 잔인하게 박해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들 중 네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3.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은 황제

로마의 황제들 중 다수가 폭력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곱 명이 누구인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한 명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 70이레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한 명입니다. 그는 바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디도 장군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수수께끼같이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덟 번째 왕인 적그리스도에 대해 "전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계 17:11).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계 17:8)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무저갱은 사람이 아닌 귀신들을 가두는 곳입니다(눅 8:30-31, 계 20:1-3). 그러므로 전에 있었던 자는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때문에 "전에 있었다"는 것은 비록 일곱 황제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지만 그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하나에게만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 70이레에서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디도 장군입니다.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대학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저갱으로 내려갔다가 종말에 다시 나와서 적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또다시 도륙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8-11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라는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먼저 디도에게 들어갔고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70이레 예언에서 '디도'와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을 동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디도 속에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중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전에 있었던 자는 다름 아닌 디도입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를 통해 재확인됩니다. 일곱 머리는 로마 황제인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

처가 낫자 온 땅이 그 머리가 아니라 짐승을 따릅니다. 이처럼 요한은 그 머리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합니다. 더구나 12절에 보면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아니라 짐승이 죽게 되었고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하면서 머리 하나와 짐승을 동일시합니다. 머리는 과거 로마 황제 중의 하나요 짐승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둘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계 17:11)에서 로마 황제 중 하나와 적그리스도가 동일시되듯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에 있었던 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황제이며, 그가 바로 디도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십사만 사천 명 상상과 추측은 금물이다.

우리는 다니엘 70이레 예언을 통해 마지막 "이레의 절반" 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요한계시록에도 그 표현 그대로 혹은 "마흔두 달"이나 "천이백육십 일"로 나오며, 같은 기간인 대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적 해석이 틀렸고,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는 학자들이 그 기간을 교회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 특히 후반부인 대환난과 그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계시한 책입니다.

그러나 70이레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단 9:24)라고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정한 기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한 이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사만 사천이 왜 유대인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후에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이니 기대하십시오.

● 나눔과 적용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는 교만인데 과장하는 것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과시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높아진 나를 겸손케 하는 방법들을 나누어봅시다.